우암학원 창학66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KOLPING 콜핑에선 즐겁다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272호 1판 (음력 5월 19일)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美 정부 5·18 기록물 '광주상황보고서' 공개 검토

광주 방문 리퍼트 대사 5·18 재단에 밝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80년 5월을 둘러싼 진실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5·18기념재단 측이 5·18 당시 보안사령부가 만들어 주한미군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상황보고서'를 제공해줄 것을 미 대사관 측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리퍼트 대사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2면〉

22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재단은 이날 오후 재단 사무실을 방문한 리퍼트 대사에게 미국 정부가 보유한 5·18 관련 기록물 제공을 요청했다. 차명석 5·18재단 이사장, 김양래 상임이사 등 재단 관계자와 리퍼트 대사 등 미대사관 관계자간 30여분간 진행됐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다.

5·18재단 측은 미 대사관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5·18기록물 중에서도 당시 보안사령부가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작성한 문서를 특정하고 구두로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재단 측은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허화평씨 등 보안사 관계자 2명이 작성해 주한미군 측에 전달한 문서(광주상황보고서)가 미대사관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18재단의 한 관계자는 "5·18관련 수사기록을 보면, 1980년 5월 보안사령부 소속 장교들이 미8군 등 미군부대 2곳에 광주 상황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 일명 '광주상황보고서'를 건넸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문서에는 계엄군의 집단발포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5·18관련 비밀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518 당시와 직후 광주시민이 미국에 실망한 것을 리퍼트 대사에게 설명하면서 미대사관 측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재단 사무실 앞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차명석 5·18재단 이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들 뒤로 5·18 당시 모습을 담은 그림 '대동세상'이 걸려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안사 허화평 등이 작성
주한미군에 보고한 문서
80년 5월 15~30일 상황 담겨
계엄군 집단발포 등
5·18 진상규명 열쇠 될 듯

구두 요청 외에도 5·18재단 측은 30년이 경과해 기밀이 해제된 미정부 보유 기록물 목록 10여개 안팎을 문서로 작성해 미대사관 측에 전달하고 제공을 요청했다. 5·18재단 측이 리퍼트 대사와의 면담에서 5·18기록물 공개와 관련 기록물을 되도록 '특정'한 것은 지난달 양 측의 사전 논의 과정에서 미대사관 측이 양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사전 논의 과정에서 미대사관 측은 "문서 생산의 주체, 생산일시, 제목 등 5·18재단이 바라는 문서를 되도록 특정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재단 측의 5·18기록물 제공 요청에 대해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 대사의 권한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서도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18재단 측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5·18기념재단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재단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주한 미국대사의 5·18재단 방문은 지난 2010년 캐서린 스티븐슨 대사에 이어 2번째다. 5·18기록물 제공 요청은 지난 2009년에 이어 2번째로, 이번 요청은 이전보다 상당부분 구체화된 논의가 이뤄졌다고 재단은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2일 개막한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문화장관회의 참석자들이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의 안내로 문화전당 설계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당 규모 놀라워…전시 내용도 훌륭"

아셈문화장관회의 참석 대표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렇게 규모가 큰 공간인 줄 몰랐다. 전시 내용도 참신하고 흥미롭다." 〈관련기사 2면〉

제7차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문화장관회의가 22일 오후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광주에 도착한 대표단은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의 안내를 받아 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아셈 회원국 44개국 문화 관련 고위 정부대표 160여명이 참석했다. 폴란드 피오트르 글린스키 부총리 겸 문화부 장관, 방글라데시 아사두자만 누르 문화부 장관, 그리스 아리스티데스 발타스 문화체육부 장관, 태국 비라 롯포짜나랏 문화부 장관 등이 주요 인사다.

이들을 안내한 방 문화전당장은 "문화전당 창조원과 정보원 라이브러리 파크 등을 둘러본 각국 장관들이 놀라움과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와 광주시가 국제적인 행사준비를 매우 잘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묵향' 공연을 관람하며 한국의 전통미를 체험했다. 묵향은 매·난·국·죽의 사군자를 소재로 군자의 덕과 풍류를 표현한 국립무용단의 대표작품이다.

공연 후 문화창조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만찬을 주재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문화장관회의가 아셈 회원국 간 문화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와 창조경제'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해공항 확장에 4조3800억 투자
"무안공항 활성화 약속도 이행해야"

광주시·전남도, 정부에 촉구

광주시와 전남도가 영남권 신공항 계획 발표와 관련, 서남권 공항 활성화 대책의 병행 추진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3일 협의를 통해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되면서 김해공항에는 4조3800억원이 투자돼 시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남권 광주와 무안공항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논리에서다.

시·도는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에 확장 건설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륙별 노선할당 등 지역 거점공항의 국제노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는 국제공항을 인천·김포, 김해, 무안 3각축으로 재편하도록 요구하며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공항 이전 시 정부에서 약속한 활성화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시 광주공항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노선 등을 제주공항과 같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공항을 활성화하려면 국제선 기능 강화뿐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활주로와 터미널 등 공항시설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시·도는 요구했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을 감안한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 비행사고와 소음피해 요인인 군공항을 포함한 광주공항 기능 이전과 연계해 서남권 공항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아동시설 종사자 법정정원 미달 ▶6면
그림편지-강남구의 '남해'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심연비 : 6.5km/ℓ, 고속도로연비 : 8.8km/ℓ), 5등급, 복합CO_2 배출량 24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